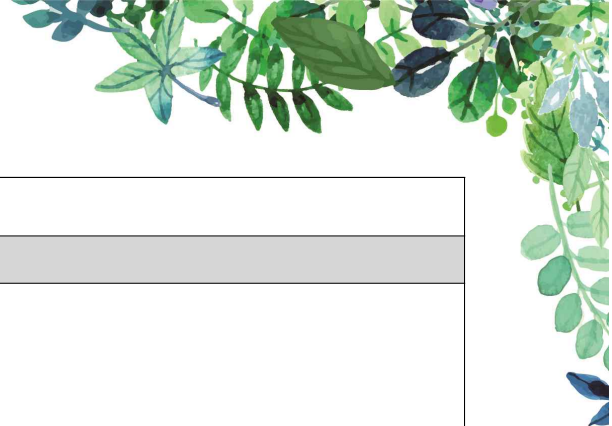


ABS BRIEF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기 간	2017년 11월 1일~30일
요 약	
<p>● 국내동향</p> <p>【신문기사 및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봉엘에스, 회복 추세...3분기 영업이익 20억 실적 ('17.11.1) ○ 전통지식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17.11.1) ○ 충남 인삼약초연구소 “토종 약용작물 표준품종 개발한다”...식방풍·고삼 연구 ('17.11.3) ○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17.11.6) ○ 해외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나고야의정서 대응 '동아줄'로 주목 ('17.11.8) ○ 국회,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방안 논의의 장 열어 ('17.11.8) ○ 순천대, 오는 16일 ‘한약의 산업화·과학화 심포지엄’ 개최 ('17.11.10)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11.14) ○ 산업은행,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내 기업 전략수립 지원 ('17.11.14) ○ 300억원 규모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 조성된다 ('17.11.15) ○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7개·일자리 14만개 창출” ('17.11.16) ○ 농업유용미생물 실용화 연구... 4차 산업 견인 ('17.11.17) ○ 아파시(AFACI) 회원국에 가축유전자원 관리기술 전수 ('17.11.2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7년 품종보호·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17.11.20) ○ 특허청,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개최 ('17.11.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지정 운영 실시 ('17.11.21) ○ 원광대 생명과학부 김지수 동문, 영장류자원지원센터장 임명 ('17.11.23) ○ 산림종자산업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육종가협회 창립 ('17.11.24)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동기획 [우수 연구성과 현장 속으로Ⅳ] ('17.11.24) ○ 토종발효종균으로 우리 술·식초 제대로 맛본다 ('17.11.24) ○ 장흥군, 표고버섯 종자(種子) 주권 확보 ‘총력’ ('17.11.26) ○ 경남 밀양 바이오연구지원센터 28일 ‘첫 삽’ 뜬다 ('17.11.27) 	



● 국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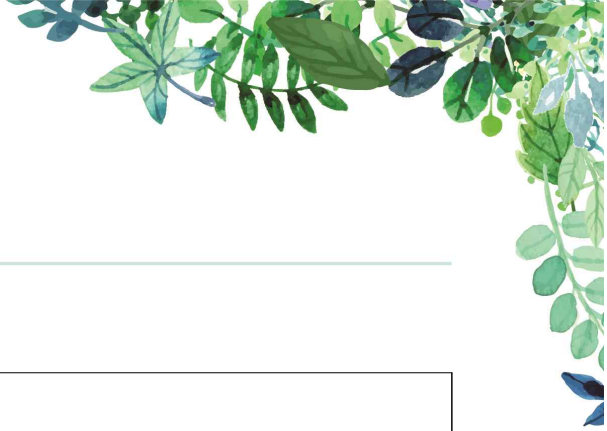
○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4개국(103개국+EU)

지역	비준 국가	합계
아시아	요르단, 인도, 라오스,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타르, 한국,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22
오세아니아	피지,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바누아투, 마셜제도	5
유럽	서부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영국, 독일,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12
	기타 알바니아, 헝가리,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몰도바, 룩셈부르크, EU	11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과테말라, 페루, 우루과이, 도미니카,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안티가바부다, 에콰도르	13
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세이셸,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베닌,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니제르,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감비아,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기니,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지부티, 토고, 세네갈, 잠비아, 말리,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짐바브웨, 차드	41

○ 에콰도르('17.12.19), 차드('18.1.9), 레바논('18.1.11)은 당사국(Parties, 현재 101개) 예정

【 신문기사 및 기타 】

- 부탄,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의 상호이행"에 관한 탄뎀 워크숍 개최 ('17.11.1)
- 국제상공회의소,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 적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17.11.3)
- 스페인, 화장품 원료회사 최초로 ABS 국제인증서(IRCC) 획득 ('17.11.4)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 관련 국가의견 제출 ('17.11.7)
- 영국, 학술기관 등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적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17.11.12)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7.11.16)
- 보츠와나, 국가 유전자원 이익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 개최 ('17.11.21)
-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정책입안자 및 규제담당자를 위한 ABS 핸드북 제작 ('17.11.30)



국내 동향

주요 동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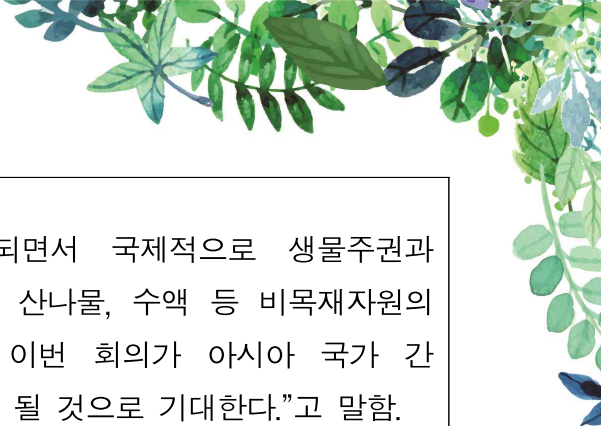
【신문기사 및 기타】

□ 대봉엘에스, 회복 추세...3분기 영업이익 20억 실적

-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는 매출 154억, 영업이익 20억을 담은 3분기 실적을 발표.
 - 약 400여 개의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대봉엘에스 화장품소재사업부가 중국 사드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은 기간에 베트남, 미국, 유럽 등 해외 간접 수출 물량을 늘렸을 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위주의 유통고객을 확대.
 - 대봉엘에스는 “한중 관계 개선 등의 뉴스와 함께 업계 하반기 실적 예측이 밝다”며 “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동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만의 C&D 개발구조, 사업포트폴리오,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개발 등으로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갈 것” 이라고 말함.
- ※ 메디컬투데이 ('17.11.1)

□ 전통지식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아시아 원주민의 전통적 비목재자원의 이용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0회 아시아 산림전통지식과 문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
- 세계임업연구기관회의(IUFRO), 아시아산림연구기관연합(APAFRI), 아시아산림 협력기구(AFoCO) 관계자와 11개국 도시숲 전문가 등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해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과 각국의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국가별 우수사례를 공유.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 기후변화 및 산림관리와 관련된 속담, 구전, 규약에 관한 사례 발표, (2) 비목재자원의 이용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례발표, (3) 산림전통지식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사례발표 등과 함께 안동하회마을을 견학 등이 있음.
- 10회를 맞고 있는, 아시아 산림전통지식과 문화 국제학술회의는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 간 산림전통지식과 문화의 가치를 발굴, 이용, 공유하는 국제회의이며,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부터 아시아산림전통지식네트워크의 의장기관을 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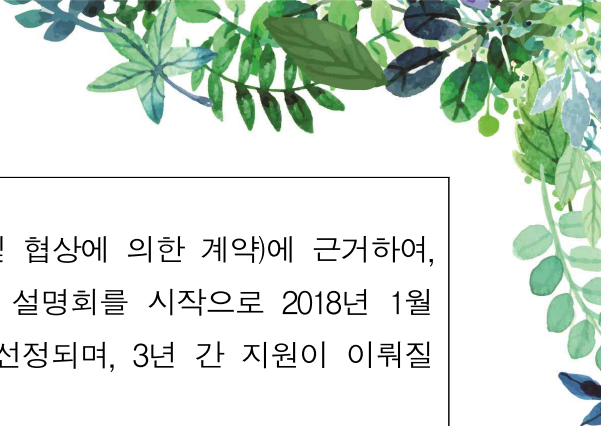
-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제적으로 생물주권과 산림전통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토리, 산나물, 수액 등 비목재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통적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 간 산림전통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 정책브리핑 (‘17.11.1)

□ **충남 인삼약초연구소 “토종 약용작물 표준품종 개발한다”...식방풍·고삼 연구**

-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토종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식방풍과 고삼 등 약용작물의 표준품종 개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힘.
 - 한약재와 의약품 개발, 식품, 쌈채 등 다양한 용도로 약용작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 수 약용작물의 표준품종이 없어 재배시 균일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전국적으로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만4458ha이며, 생산량은 7만6900t에 달하고, 전체 60개 주요 작목 중 32개의 경우 품종이 육성돼 있으나 28개는 표준품종이 없음.
- 연구소는 현재 전국 25개 지역에서 식방풍과 고삼의 유전자원을 수집해 교배·선발 시험을 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표준품종을 육성해 등록한다는 계획.
 - 식방풍은 ‘중풍을 막는다’고 해서 방풍나물로 알려진 식용작물이며, 고삼은 약효성분인 마트린이 함유돼 있고 해열작용과 이뇨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삼 추출물은 유기농자재로도 활용됨.
- 연구소 관계자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토종 약용작물에 대한 표준품종 등록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토종 약용작물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종자보급체계 구축과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함.
- ※ 경향신문 (‘17.11.3)

□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지역 순회 설명회를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전문 인력의 양성)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대응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사업 총괄은 환경부가, 전담 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맡아 사업 평가와 관리 및 지원을 하며, 주관 기관인 대학원은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담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한 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은 2017년 11월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사업 공고와 계약을 거쳐 3월까지 총 7개 대학원이 선정되며, 3년 간 지원이 이뤄질 계획.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총 148명의 석·박사 과정생을 지원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했으며, 이 가운데 총 22명이 해당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 정책브리핑 ('17.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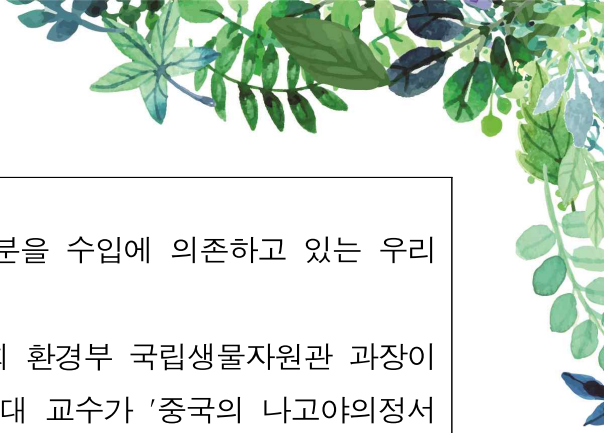
□ 해외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나고야의정서 대응 '동아줄'로 주목

-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라오스 생물자원 공동연구 7주년을 맞아 라오스 산림청에 식물, 균류, 곤충,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2470종의 생물표본 3301점을 기증.
-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바이오산업계가 처한 해외 생물자원 확보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관심이 모아짐.
- 특히 이번에 공동연구를 진행한 라오스의 경우 우리 바이오업계의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 대체 소재를 발견할 새로운 창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자원관은 이번에 라오스에서 발굴한 생물자원의 효능을 밝혀 협력국과 공동 특허출원 등의 추가 연구를 진행할 방침.
- 현재 라오스와 함께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탄자니아, 미크로네시아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7개국과 공동조사와 생물자원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원관은 필리핀 등으로 대상 국가를 늘려갈 계획.
- 백운석 자원관장은 "지구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경로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함.

※ 뉴시스 ('17.11.8)

□ 국회,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방안 논의의 장 열어

-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
-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은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기동민, 김성수, 김승희, 신보라, 전해숙, 정운천, 정춘숙, 주광덕, 최도자 의원(가나다순) 총 1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 정부와 국회,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생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화장품·바이오산업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
- 좌장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오경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과장이 '나고야의정서 현황 및 업계 지원 방안', 윤성혜 인천대 교수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전용석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TF 팀장(코스맥스)이 '나고야의정서 화장품 업계 시사점'을 각각의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
- 김상희 의원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없었던 생물유전자원 수입절차와 이익공유에 대한 이행부담을 갖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 산업계 등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힘.

※ 약업뉴스 ('1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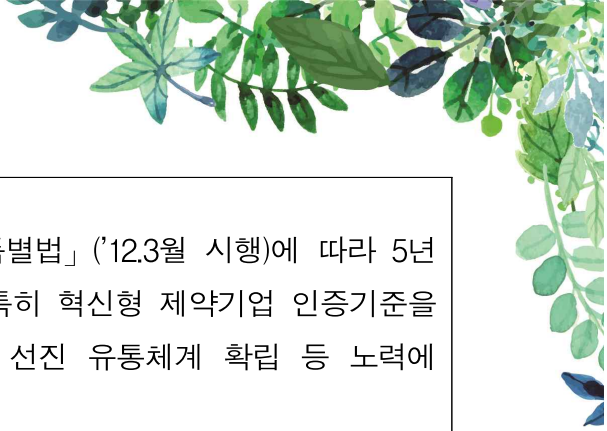
□ 순천대, 오는 16일 '한약의 산업화·과학화 심포지엄' 개최

- 국립 순천대학교 한의약연구소는 오는 16일 순천대 70주년기념관에서 '한약의 산업화 그리고 과학화'를 주제로 '제16회 한약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난 9일 밝힘.
- 순천대 박종철 교수가 '스위스 식물원 그리고 알프스의 약용식물', 경남과기대 신용욱 교수가 '최근 포제학 연구동향, 4대 액체보료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
- 이와 함께 캐머노니아(주)의 정희태 대표이사는 '초오를 이용한 모르핀 대체제의 개발'에 관해 강연을 할 예정이며,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조현우 팀장과 안병관 선임연구원은 '한약의 안전성 연구'와 '나고야의정서와 한국토종 한약자원 연구'란 주제로 각각 발표.
- 이와 관련 박종철 순천대 한의약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약의 안전성과 산업화 그리고 국내외의 한약자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한약의 과학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한의신문 ('17.11.10)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 라마다호텔(서울)에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 제약 관련 산·학·연(産·學·研) 전문가 80여명이 지난 3월부터 참여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에서 논의한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제약 전문가 및 연구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 이번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월 시행)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법정 종합계획이며,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선진 유통체계 확립 등 노력에 관한 내용이 있음.
- 이번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그간 50회 이상의 분과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며,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연구개발(R&D), (2) 일자리, (3) 수출지원, (4)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함.
-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제약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임.

※ 정책브리핑 (’17.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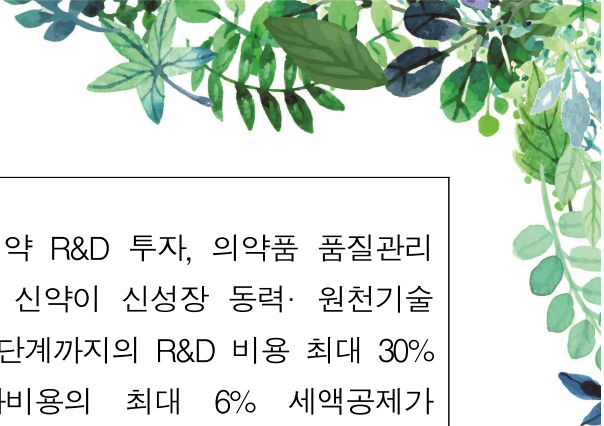
□ 산업은행,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내 기업 전략수립 지원

- 산업은행은 14일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의 전략 수립 지원 방침을 밝히며, 여의도 본점 1층 스타트업IR센터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 대응 'KDB 테크 커넥트 데이'를 개최.
- 산은은 생물자원에 대한 자원 주권화 및 생명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생물자원 활용비율이 높은 화장품, 제약, 건강기능식품 및 종자 관련 기업에 생물자원수급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 서성호 벤처기술금융실 실장은 "산업은행은 생물자원분야 기업의 수입대체자원 개발 등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해 생물산업 관련 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함.

※ 뉴시스 (’17.11.14)

□ 300억원 규모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 조성된다

- 15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임승인 실장은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
- 종합계획안에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민·관 총 300억원 이상 규모) 조성을 통해 제약분야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추진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서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이 담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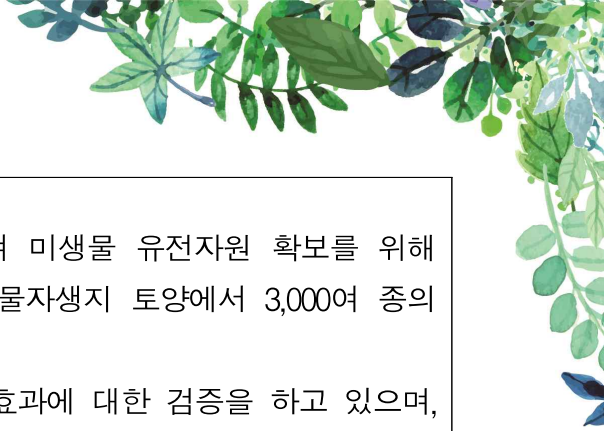
- 업계 실장은 “제약분야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해 신약 R&D 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가 이뤄지고 있다. 신약이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분야로 지정돼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3상 단계까지의 R&D 비용 최대 30% 세액 공제와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최대 6% 세액공제가 이뤄진다”면서도 “국내 기업의 활발한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수행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확대하고 신약 뿐 아니라 혁신형 개량신약 등의 연구개발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내실화를 검토필요.
 -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제약산업계 인식 제고 노력과 해외 유전자원 대체를 위한 국산 유전자원 확보 및 DB화를 요구되고 있음.
 - 업계 실장은 보건 신기술 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보건 신기술 인증 의약품에 대해선 국공립병원 처방의약품 목록 의무 등재·우선입찰 논의 등 초기시장 안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음.
- ※ 약업신문 (‘17.11.15)

□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7개·일자리 14만개 창출”

- 지난 15일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17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 신약 17개와 제약산업 일자리 14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
 - 정부는 이날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강국으로 도약’이란 비전과 함께 (1) R&D(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2) 인력양성(제약산업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3) 수출지원(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4) 제도 개선(선진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4대 목표로 공개.
 - 정부는 치매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를 늘리고 백신 자금률 향상을 위한 R&D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며, 백신자금률 향상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설립(2020년 완공 목표)하고, 차세대 기술 기반 백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도 확대할 방침.
- ※ 청년의사 (‘17.11.16)

□ 농업유용미생물 실용화 연구... 4차 산업 견인

- 충북농업기술원 미생물연구센터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결과를 산업화시키기 위해 지난 16일 충북 정보통신기술 융합협의회 회장, 시군농업 기술센터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 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힘.



- 미생물연구센터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미생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약용작물 재배지, 관목림, 특이한 생육을 나타내는 식물자생지 토양에서 3,000여 종의 미생물을 분리.
- 분리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작물생육 및 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며, 현재 단백질과 섬유질 분해능력이 뛰어나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새로운 미생물 유전자 2종을 발견하여,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
- 기존에 특허 등록되어 있는 효과 높은 미생물을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현장 활용 기술을 연구하여 영농기술정보를 제공.
- 충북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은 “미생물 유전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는 4차 산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핵심기술로 이번 기회가 충북의 미생물 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귀농인 ('17.11.17)

□ 아파시(AFACI) 회원국에 가축유전자원 관리 기술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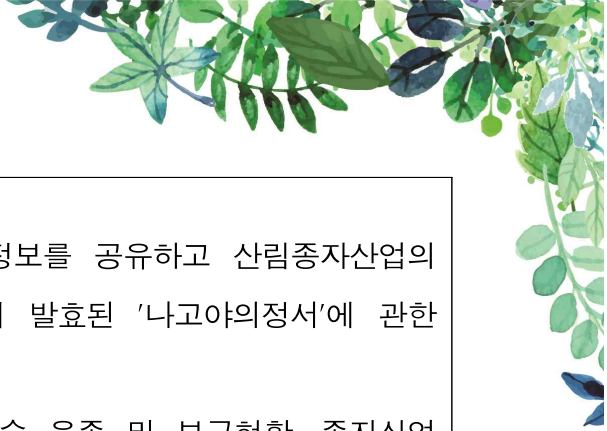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이하, 아파시(AFACI)) 회원국인 네팔과 부탄에서 '가축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지지도'를 실시.
- 아파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아시아 지역 14개 나라(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부탄, 한국)를 대상으로 진행.
- 농촌진흥청은 가축유전자원 전문가를 네팔(네팔 농업연구센터, 8~11일)과 부탄(부탄 생물다양성센터, 11~17일)으로 파견해 두 차례에 걸쳐 현지 교육을 실시했고, 디엔에이(DNA) 추출 방법을 지도하고 가축유전자원의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
-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축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의 자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노희중 농업연구사는 “가축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술 지도가 각국 관련자의 능력배양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힘.

※ 정책브리핑 ('17.11.2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7년 품종보호·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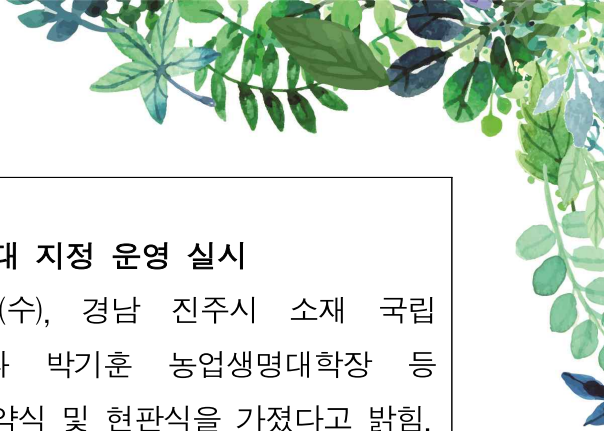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한화리조트에서 산림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종자산업 관련 업계, 기관, 협회 회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17년 품종보호·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



-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및 종자산업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종자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며, 올해 8월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
 -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운영현황, 산림분야 특용수 육종 및 보급현황, 종자산업 진흥센터 및 임업진흥원의 종자산업 관련 지원정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대응 전략, 표고버섯 품종식별 마커개발 현황 등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
 - 김종연 센터장은 "신품종과 같은 산림생명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산업화는 산림생명산업의 발전과 임업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센터에서는 현장설명회,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개혁에도 앞장서는 등 개인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함.
- ※ 충북일보 (17.11.20)

□ 특허청,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11월 28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전문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
 - 미국, 중국, EU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대상국이 52개국에 달할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FTA의 지재권 분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
 -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에서는 미국, EU 등 주요국 및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특히, 해외 지리적 표시 보호 및 우리 유명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소개될 예정이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시행에 따른 생물유전자원의 국제적 논의 현황 및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방안도 설명.
 - 특허청 임현석 다자기구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지재권 관련 FTA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져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지재권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 정책브리핑 (17.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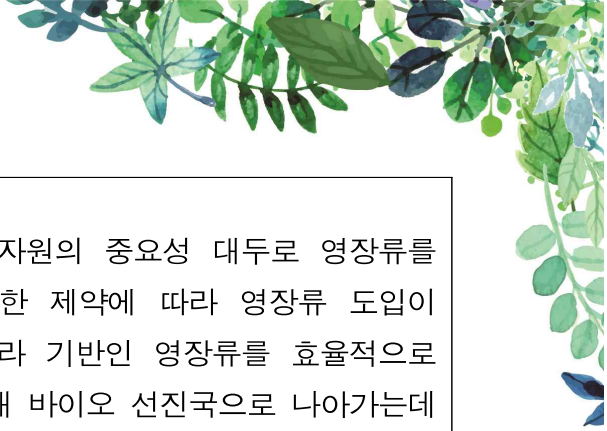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 지정 운영 실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11월 22일(수), 경남 진주시 소재 국립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에서 김종연 센터장과 박기훈 농업생명대학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협약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초 국립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3년간 국내 자생 난대수종 가시나무류(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등)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국립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는 수집자원(가시나무류)에 대해 체계적 수집, 보존 및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다양한 산림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 및 이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할 것이며, 보존자원의 D/B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육종연구에도 활용할 계획.
 - 이번 난대수종 가시나무류 대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자원의 특성 및 용도에 맞추어 수집·보존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특성평가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기후변화 대비와 목재산업에 적합한 난대수종 선발은 매우 중요하며, 국내 가시나무류 자원의 수집, 보존 및 특성평가를 통해 육종소재발굴을 하겠으며, 나아가 국내 목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 정책브리핑 (‘17.11.21)

□ **원광대 생명과학부 김지수 동문, 영장류자원지원센터장 임명**

-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동문인 김지수 박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장에 임명.
 - 김지수 센터장은 원광대 생명과학부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9년 국가영장류센터 박사 후 연구원을 시작으로 영장류 발생공학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시험관 원숭이 생산에 성공.
 - 특히, 발생공학 전문잡지에 총 6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특허 등록 3건, 출원 8건 등 연구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장을 맡게 됨.
 -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축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의 자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 김지수 센터장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국가 간 자원의 중요성 대두로 영장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거래 및 이동에 관한 제약에 따라 영장류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가적 인프라 기반인 영장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산학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차세대 바이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바지 하고 싶다”고 밝힘.

※ 전북도민일보 ('17.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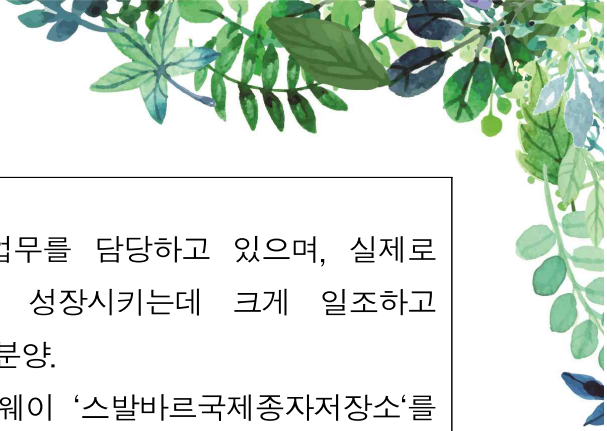
□ 산림종자산업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육종가협회 창립

- 오는 28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산림자원 육종가협회' 창립총회가 열림.
 - 협회 설립은 지난 4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에서 있었던 '2017년 산림신품종 개발 촉진을 위한 육종가 간담회'에서 민간육종가들의 건의로부터 시작.
 - 이 협회는 산림분야 민간육종가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활용으로 종자산업 민간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 품종보호제도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민·관 협력의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자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기후변화, 생명공학기술 발전,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UPOV) 결성에 따른 품종보호 활성화,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산림분야 민간육종가들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때임.
 -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미래 핵심산업인 종자산업 분야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해, 산림자원 육종가협회가 종자산업 민간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

※ 중도일보 ('17.11.24)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동기획 [우수 연구성과 현장 속으로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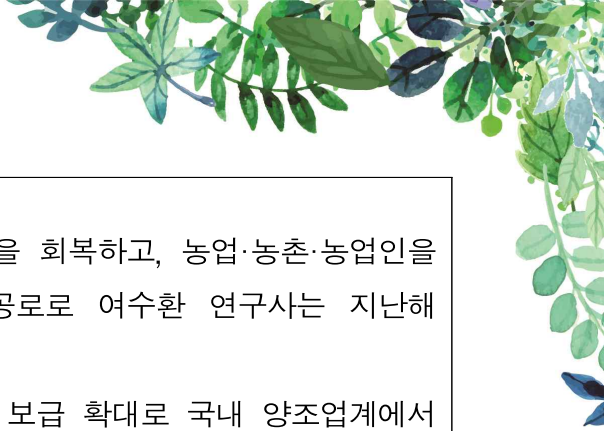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은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실물의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 종자관리법을 두고 보존자원의 관리와 국내외 자원의 확보에 집중했고, 2008년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생명자원을 국가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국가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
 - 농진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식물종자), 소속기관 13개 기관 시험포(식물영양체), 농업 미생물과(미생물), 잠사양봉소재과·곤충산업과(뽕나무·누에·곤충), 국립축산과학원 (동물), 축산원 가축유전자원센터(생식세포)로 관련 업무를 분담해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 체계를 구축.



- 자원탐색·수집, 자원증식·평가, 자원보존, 자원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농업유전자원을 대학·종묘회사 등에 분양해 농업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대학·종묘회사 등에 2만827자원이 분양.
 -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세계 6위의 종자보유센터로 노르웨이 ‘스발바르국제종자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과 협약을 통해 아시아 지역 ‘유전자원중복보존소’로 지정.
 - 농진청은 국가 농업생명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을 도모코자 농업생명자원 서비스 종합포털(<http://genebank.rda.go.kr>)을 지난 2월 개발하여, 그간 각 분야별(식물, 미생물, 곤충)로 독립됐던 서비스 구조를 통합해 농업생명자원서비스 종합포털을 구축.
 -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능성 품종 육성, 생명공학연구, 신물질 개발 등 유전자원의 잠재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학·연 협업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유용 유전자원을 선별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함.
- ※ 농업인신문 (17.11.24)

□ 토종발효종균으로 우리 술·식초 제대로 맛본다

- 발효식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표준화된 원천기반기술 개발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관련 연구와 산업 실정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 “21세기 들어 생물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EU와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유용 미생물 자원 발굴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미생물 시장은 정반대로 발효식품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종균을 외국으로부터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여수환 연구사(농촌진흥청)가 말함.
- 국내 종균 생산업체는 영세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시설이나 장비 등 고가의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수입 종균제품에 비해 국산은 품질이 낮아 대부분의 발효식품 생산업체가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외국산 종균을 선호.
- 여수환 연구사는 지난 10여 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누룩, 메주, 식초 등 다양한 발효식품에서 우수한 특성을 지닌 토착 발효미생물을 발굴하고 자원 확보를 통해 주류, 장류, 식초류 등에 적합한 종균 연구에 착수했다. 마침내 지난해 그 성과를 이룸.
- 현재 곰팡이, 효모, 유산균, 초산균 등의 발효미생물 225주를 발굴·선발했고, 아플라톡신 등의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을 국가지정 균주보존센터에 92주를 등록했으며, 특히 발효특성이 뛰어난 16종의 토착 발효종균 발굴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향후 한일FTA 체결에 따른 수입 종균 대체로 우리의 생물자원 권리를 주장할 원천기반기술 국산화와 발효종균의 주권 회복을 어느 정도 이루는 신호탄이 됨.



- 이 같은 토종 발효종균 연구·개발로 우리 종균 주권을 회복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실용화기술을 개발해 산업화한 공로로 여수환 연구사는 지난해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김.
- 총무발효는 농진청이 발굴하고 이전 받은 발효균주의 보급 확대로 국내 양조업계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박차.
- ※ 농촌여성신문 ('17.11.24)

□ 장흥군, 표고버섯 종자(種子) 주권 확보 '총력'

-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24일 유치면다목적회관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표고 국산 원목품종 설명회'를 개최.
 -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장, 장흥군 위삼섭 부군수, 제해신 버섯산업연구원장과 국립산림과학원 최돈하 전문위원, 산림버섯연구센터 이재현 센터장, 장흥표고버섯생산자연합회 윤용진 회장 등 표고 재배자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센터, 충북대, 단국대와 함께 표고 외산품종 대체 및 국산품종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표고품목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
 - 토리영농조합 김병량 대표의 주재로 표고의 원산지 표시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회도 열림.
- 김복실 장흥군의회 의장은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신품종보호동맹,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조약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품종에 대한 주권확립과 자급률 향상이 시급할 실정이다”며 “오늘 모인 재배자와 관계기관에서 힘을 모아 국산품종의 재배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함.
- ※ 아시아경제 ('17.11.26)

□ 경남 밀양 바이오연구지원센터 28일 '첫 삽' 뜬다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8일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서 바이오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연다고 27일 밝힘.
 -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연면적 1천861㎡에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고, 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58억4천만 원(국비 100%)이 들어가며, 센터는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소재은행과 연계해 대량증식 핵심기능을 수행.
 -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바이오연구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야생식물의 전략적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해 나고야의정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 연합뉴스 ('17.11.27)



국외 동향

주요 동향 정보

【 신문기사 및 기타 】

□ 부탄,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의 상호이행"에 관한 탄뎀 워크숍 개최

- 나고야의정서와 “식량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이하, ITPGRFA)”의 상호이행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9월 29일(금) Metta Resort에서 개최되었음.
-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의 인터페이스의 핵심 쟁점을 식별하는 것과 보다 광범위한 국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함께 추진.
- 특히, 종자 시스템에 대한 발표와 ITPGRFA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 방법 및 식물조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상호보완적 이행에 관한 사례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임.
- 부탄 법무부, 부탄왕립대학, 국립생물다양성센터(National Biodiversity Center) 등에서 23명이 워크숍에 참석함.
- ※ 부탄 농림부 홈페이지 (‘1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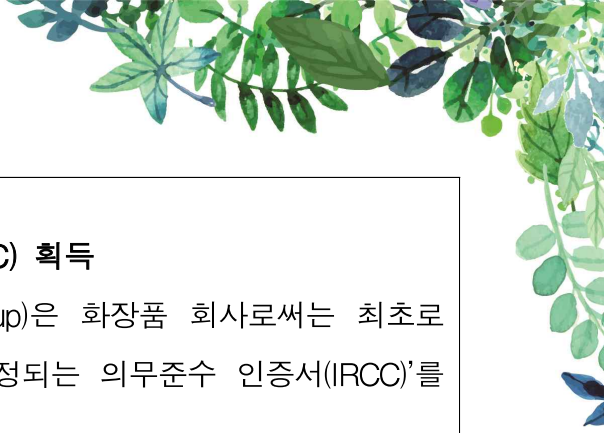
□ 국제상공회의소,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 적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는 DSI를 CBD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대해 우려 표명.
- ICC는 “CBD 정의조항(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실제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가시적인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CBD 상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규제 측면에서도 유전자염기서열은 여러 유전자원에서 공동으로 발견될 수 있어 각각의 염기서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명시.
- 본 의견서를 포함한 국가 및 기관들(13 당사국, 1 비당사국, 37 민간단체)의 의견서는 모두 CBD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고, 이렇게 취합된 의견서들을 ‘18년 2월 13~16일에 DSI 특별기술전문가그룹 회의(AHTEG)에서 토의할 예정.

* 전문염람: <https://iccwbo.org/publication/digital-sequence-information-and-the-nagoya-protocol/>

* 전체 의견서 전문염람: <https://www.cbd.int/abs/dsi-gr/ahteg.shtml#submissions>

※ 국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17.11.3)



□ **스페인, 화장품 원료회사 최초로 ABS 국제인증서(IRCC)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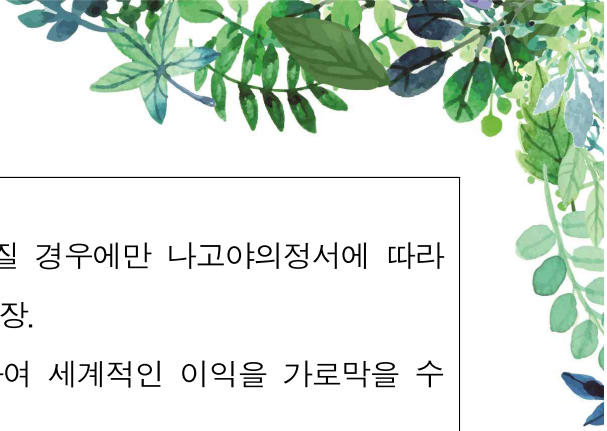
- 스페인 화장품 원료회사 프로비탈 그룹(Provital Group)은 화장품 회사로서는 최초로 나고야의정서 공식 이행을 증명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IRCC)’를 획득.
- IRCC는 멕시코 환경부가 발급하였으며, 지난 10월 11일(수) ABSCH에 게재되었고, ABS 대상물질은 멕시코 전통식물 및 관련 전통지식이며 MAT(상호합의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
- 프로비탈 그룹은 해당 전통식물 및 전통지식 이용을 위해 케레타로 주 부족민 그룹 및 케레타로 국립 자치 대학교와 협력하여 R&D 활동을 수행중임.
- * 인증서 전문열람: <https://absch.cbd.int/database/ABSCH-IRCC-MX-238488>
- ※ William Reed (‘17.11.4)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 관련 국가 의견 제출**

- 지난 2016년 12월에 있었던,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2)의 결정문 제10호(NP-2/10)에 따라, CBD 사무국은 당사국(Party), 비당사국(Non-Party),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PLC), 이해관계자(Stockholders) 들에게 나고야의정서 제10조, 세계다자간 이익공유체계(GMBSM)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 특히 현지내(In-situ), 현지외(Ex-situ)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PIC 허가 및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경우와 이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과 의견들을 요청.
- 제출된 국가의견들은 제2차 이행 보조기구(SBI 2)에서 논의되어,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3)에서 토의하게 됨.
- * 관련 CBD 공문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094-abs-en.pdf>
- ※ CBD 사무국 홈페이지 (‘17.11.7)

□ **영국, 학술기관 등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적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영국왕립생물학회 및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를 미국국립생물 정보센터(NCBI) 등의 오픈 데이터에 게재 하는 것은 ‘기초 연구’이지 나고야의정서 상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견서를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에 제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DSI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자 간 ABS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
- DSI에 대한 규제가 R&D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세계적인 이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
- 미생물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존재하는 광범위한 개체이기 때문에 미생물 관련 유전자염기서열 정보는 해당 종 및 지리적 출처 확인이 쉽지 않음을 각인.
- 웰컴트러스트생어센터(Welcome Trust Sanger Institute/ 세계 최대 DSI 분석DB를 구축)도 DSI 규율에 대해 ‘득 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
- DSI의 공유로 혜택을 받는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는 것이 특징.

* 전문열람:

https://www.rsb.org.uk/images/RSB_response_Defra_call_for_comment_on_DSI_and_Nagoya_protocol.pdf

** 전문열람:

<https://wellcome.ac.uk/sites/default/files/the-use-of-digital-sequence-information-on-genetic-resources.pdf>

※ 영국왕립생물학회 등 해당기관 홈페이지 ('17.11.12)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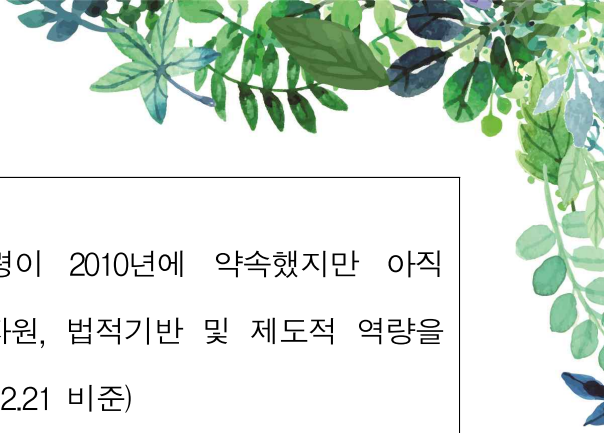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민간기업, 연구기관, 현지외 컬렉션(자원은행, 보존기관 등)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ABS 관련 모범관행, 행동규약, 가이드라인, 모델계약 개발 및 이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초청.
- 나고야의정서 제31조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는 의정서 발효 4년 후 의정서의 효율성을 평가해야하고,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 제4호 (NP-2/4)에 따라, 본 제1차 평가에 포함시킬 정보들을 파악해야 함.
- 당사국 및 비당사국,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PLC)에게 ABSCH 운영관련 설문지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줄 것을 요청.

* ABSCH 운영관련 설문지: <https://goo.gl/forms/n8aOhECy91rL4UJ2>

※ CBD 사무국 공문 ('17.11.16)

□ 보츠와나, 국가 유전자원 이익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 개최

- 지난 10월 25일(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보츠와나 환경청(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DEA)과 공동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워크숍 개최.



- 본 워크숍의 목적은 이안 카마(Ian Khama) 대통령이 2010년에 약속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법적기반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임. 보츠와나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13.2.21 비준)
- UNDP와 환경부는 CBD와 나고야의정서의 의의를 강조하며 “자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향후 3년간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SundayStandard ('17.11.21)

□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정책입안자 및 규제담당자를 위한 ABS 핸드북 제작

- 지난 10월 26일(목),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정책입안자 및 규제담당자를 위한 ABS 핸드북, 「바이오무역(Biotrade)과 접근 및 이익공유(ABS): 개념부터 실천까지」를 제작 및 공개.
- 핸드북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BS 정책을 수립하거나 ABS 규제를 실시하는 담당자들의 실무를 지원하고자 개발됨. 구성은 각 장별로 1) ABS 소개, 2) 정책입안자 및 규제담당자를 위한 핵심 이슈, 3) ABS와 Bio-trade의 개념 및 요건, ABS와 Biotrade 간의 상호관계 및 시너지, 4) R&D 목적 및 의도 변경, 5) 이익공유: 체제 개발 및 계약 협상, 6) 나고야의정서 채택: 국내법개발 및 이행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7) 전통지식 및 IPLC 영토 관련 수행 업무, 8) ABS 및 Biotrade 인증제도, 표준, 모범관행 등, 9) 신규 중요 이슈: ABS 관련 지식재산권 및 Biotrade 프로젝트.
- 부록으로 베트남 약용식물 사례, 카메룬 Echinops giganteus 식물종 사례, 페루 Cosmo사 사례 등을 소개함.

※ UNCTAD 홈페이지('17.11.30)



ABS BRIEF 제67호

발행일 2017년 12월 1일
발행인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편집인 장영호 ABS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안민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이수효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강태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편집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전화) 042-860-4626, 042-879-8332~4
(FAX) 042-879-8339
(홈페이지) www.abs.re.kr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SN 2586-2804(온라인)



ABS BRIEF (Volume 67)

December 1, 2017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RIBB)
Edited in ABS Research Support Center, KRIBB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el: +82-42-860-4626, +82-42-879-8332~4
FAX: +82-42-879-8339
Homepage: www.abs.re.kr
ISSN: 2586-2804(Online)

[비 매 품]

'ABS BRIEF -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bs.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기사 등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